



박하선의 **사진풍경**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서해안의 매서운 바람 앞에 섰다

서해안의 매서운 바람 앞에 섰다.
 갯벌 깊숙한 곳에서 바지락을 캐는 아낙들도 들어가고
 갈매기들과 나만 남아서 석양을 지켜본다.
 먹구름이 짙게 깔려 있지만
 그렇다고 일찌감치 돌아설 수는 없는 일.
 늘 있는 일에 같은 것이지만
 보는 이의 마음에 따라 느낌이 새롭지 않던가.
 지금의 나 또한 지고 있는 해를 보고자 하기 보다는
 그 분위기에 익어가는 시간을 지켜보고 싶은 것이다.

잔뜩 찌푸린 날에도 틈새가 열리는 순간이 있다.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그 기회가 주어짐을 보아왔다.
 세상은 언제나 정의롭거나 공정하지도 않았고,
 희망성취는 언제나 우리 손안에 있어왔다.
 누천년 이어져 여기까지 왔지만
 대륙을 호령하다가 반도로 밀려나더니
 이제 그것도 반 토막이다.
 그래도 살만하다고 나대더니 이대로 가면 자멸의 수순이란단다.

모든 게 자승자박이라 말한다면 당신은 화를 내고 말 것인가?

삶의 짐을 지고서 또 한 해를 보내고 있다.
 내일도 해는 다시 뜰 것이다.
 반역과 탐욕의 충돌이 이어지더니
 요즘 들어 매국 또는 망국까지 들먹이면서도
 찻잔 안의 태풍이라 여기는가.
 패권주의가 만연한 가운데 검은 역사가 힘들게 하지만
 우리는 아직 살아있음이다.